

공동체 소식

- ▣ **교구대회 안내**
- 본당 사전 모임
* 22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2019 Convocation (교구대회)**
* 일시 : 10월 3일(목) 오후 5시 - 5일(토) 오후 12:30
* 장소 : Overland Park Convention Center

- ▣ **주일학교 안내**
- **매주일 오전 10시 나자렛관(8901 Haskins st. Lenexa KS)**
- 주일학교 자리는 해설대 쪽 앞 1열~4열까지입니다.

- ▣ **맨하탄 공동체 미사**
- 9월 28일(토) 오전 11시

- ▣ **구역 최종확정**
- I-435와 US-69를 동서와 남북 기준으로 하여 구역 최종 조정 했습니다.
- 4구역은 Nall을 기준으로 서쪽은 1반, 동쪽은 2반
- 1,2,3구역은 1반만으로 운영되며 추후 인원 증가시 2반으로 나눕니다.
- 게시판 참조

- 1구역 : I-435 북쪽, us-69 서쪽**
구역장(김명희 루드비나) - 10가정
김화년, 박계숙, 박옥희, 박태주, 이영민, 임보람, 정석원, 정연숙, 조지연, 조진환

- 2구역 : I-435 북쪽, us-69 동쪽**
구역장(김시연 엘리사벳) - 8가정
강병국, 김정원, 김정은(이은미), 김태중, 이내익, 이우석, 천주영, 현교정

- 3구역 : I-435 남쪽, us-69 서쪽**
구역장(장유정 마리스텔라) - 10가정
감영진, 강승석, 고영방, 김창식, 김호원, 문석찬, 박희영, 안재완, 이미경, 홍순익

- 4구역 : I-435 남쪽, us-69 동쪽**
구역장(차상욱 펠릭스), Nall을 기준으로 동서로 나뉘짐
*1반 (반장: 차상욱 펠릭스) - Nall 서쪽
강승호, 김병철, 박민, 이우영, 정수한, 차상욱 - 6가정
*2반 (반장:최선윤 마리아)- Nall 동쪽
김대연, 김동술, 김지섭, 안병환, 이경남, 차호섭 - 6가정

- ▣ **이민자의 날 미사 안내**
- 일시 : 9월 29일(일) 오후 4시
- 장소 : St. Patrick's Church in Kansas City (1086 N 94st. Kansas City, KS 66112)
- 교구장 주교님을 모시고 이민자의 날 미사가 봉헌됩니다.
- **전신자 미사 참여합니다.**
- 1독서와 예물봉헌 등 한인공동체가 담당합니다.
- 한복 있으신 분들은 한복 입으시기 바랍니다.
- 오전 11시 교중미사 있습니다.
- 평협회에서 관련된 내용 공지하겠습니다.

- ▣ **전례 상식**
- 주일에 타지역에 있는 경우 해당 지역 성당(한인/미국)에서 주일미사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미사 참례를 못할 경우 고해성사를 하시고 영성체 하셔야 합니다.
- 전례봉사자는 미사 참례전 고해성사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 성당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제대 앞을 지나갈때는 깊은 절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례 성가

| | | | | |
|-----|-----|-----|-----|-----|
| | 입 당 | 예 물 | 성 체 | 파 건 |
| 금 주 | 287 | 218 | 498 | 285 |
| 차 주 | 26 | 510 | 175 | 34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 | | |
|-----|----------|------------------------|
| | 해설자 | 제1독서, 제2독서 |
| 금 주 | 김대연(요셉) | 김태중(예레미야) 김시연(엘리사벳) |
| 차 주 | 최은미(아네스) | 문석찬(요셉) 백문주(엘리사벳) |

주일미사 복사

| | | |
|-----|------------|----------------------|
| | 향복사 | 시종복사 |
| 금 주 | 고평원(프란시스코) | 김정훈(로베르또) 정예진(한나) |
| 차 주 | 차민서(임마누엘) | 김정빈(바오로) 김정원(안젤라) |

헌금 봉사자

| | |
|-----|----------------------|
| 금 주 | 김태중(예레미야), 이우영(가브리엘) |
| 차 주 | 감영진(라파엘), 강승호(아오스딩) |

애찬 봉사자

| | |
|-----|-------------------|
| 금 주 | 3조: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
| 차 주 | 4조: 김화년, 안현숙, 송진희 |

-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 매 주일미사 후 간단하게 뒷정리 합니다.
- 청소 담당은 편의상 구역을 나뉘었을뿐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 +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 +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 +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ckcatholic.org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8월 25일)

오늘의 전례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들을 기리며, 순교자들의 피로 우리를 복음의 빛 안으로 불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앙 선조들의 순교 신앙을 본받아,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그림 묵상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 9, 23-24



제 1 독 서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3,1-9

<하느님께서서는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겍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31ㄴ-39

<죽음도, 삶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1-32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생명의 말씀

실패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오늘은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대축일입니다. 본래 그 대축일은 9월 20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축일 미사를 주일로 옮겨 드릴 수 있습니다. 대축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읽는 첫째 독서는 지혜서 3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혜서의 저자는 의인들의 고통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혜서의 '의인'이란 율법에 충실한 이들을 말합니다. 헬레니즘 제국들은 유대인들에게 제국의 종교를 따를 것을 명령하지만 유다의 의인들은 그에 불복하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데, 지혜서는 그들이 고통 중에 파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야말로 불사의 희망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역설합니다.

둘째 독서인 로마서 8장은 매우 감동적인 어조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넘어설 것이라고 바오로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현재의 고난과 종말의 영광을 대비시키며, 하나님의 종말론적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희망, 곧 구원임을 설명합니다.

오늘 복음인 루카복음에서 9장에서 예수는 자신의 수난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루카는 특별히 '날마다'라는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일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태 16,24과 마르 8,34에는 '날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종말이란 어떤 특정한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살아가야 할 종말론적 현재라는 루카의 신학이 드러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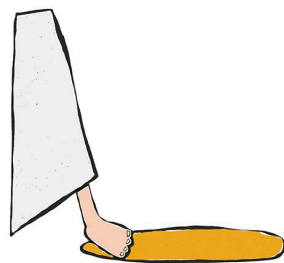
순교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켜내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순교에 해당하는 라틴말 martyrium의 일차적 의미는 '증거(testimony)'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넓은 의미의 순교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뜻합니다. 이미 8세기의 아일랜드 강론집(Cambrai Homily)에서는 적색순교, 백색순교, 녹색순교가 언급되었는데, 이에 대해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백색순교를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봉헌된 삶으로, 녹색순교를 세상 안에서 예수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이해합니다(생태신학적으로 재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존하는 삶으로 녹색순교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그 순교의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한 번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며 그 초대에 "예"라고 응답합니다.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교리신학원 원장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스승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들아, 너도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높은 데서, 내려보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높이, 같은 자리에서 사랑해야 한단다.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루카 14,14)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붉은 포도밭을 지나며

몇 년 전 초여름에 40일 동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그날도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걸어서 숙소가 있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6월 10일쯤 되는 날이었지만, 그날 오후는 가을 날씨 같았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슈퍼마켓으로 갔습니다. 작은 마을에 있는 조그만 슈퍼마켓이었는데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사과 두 알과 요플레, 납작 복숭아 몇 개를 다음날 간식으로 사 들고 나와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오래된 수도원 성당이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나뭇잎들이 바람에 굴러다녔고 검은 수단을 입은 키 큰 신부님께서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작은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당 벽과 천장에 금이 간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멘트로 덧칠해져 있었고 아무도 없는 성당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문 위에 거미줄이 걸려있는 고요한 성당에서 저는 저도 모르게 검은 봉지에 담긴 사과와 요플레를 만지작거리며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사람도 없는 성당 마당을 쓸고 계신 푸른 눈의 수사신부님처럼 저도 저의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저의 글을 세상이 알아주는 것과 알아주지 않는 시선에서 벗어나, 저도 밖에서 혼자 마당을 쓸고 계시는 수사신부님처럼 저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며칠 후 햇볕이 내리쬐는 뜨거운 포도밭을 지나면서 '시 등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기쁘거

나 설레지 않았습니다. 17년 동안 신춘문예와 잡지에 투고해서 떨어졌기 때문인지 오히려 조금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길을 걷는 순례의 길에서 만난 이 기쁜 소식에 감사할 줄 모르는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름 모를 작은 수도원 성당에서 했던 기도는 무엇이였을까, 왜 내가 원했던 것을 받았는데도 기뻐하기보다는 침울해할까, 스스로 되물곤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등단 소식을 들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늦게 등단한 저에게 원고 청탁 기회도 잘 오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번 수도원 성당 맨 뒷자리에서 했던 기도도 진심이지만,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 이 마음도 진심입니다.' 예수님께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서야 마음속 침울함이 빠져나갔습니다.

요즘도 가끔 수도원 성당 마당을 혼자서 묵묵히 쓸고 계시던 등이 굽은 수사신부님의 모습이 스쳐갑니다. 그리고 글쓰기가 뜻대로 잘 안될 때마다 낡고 오래된 성당 뒷자리에서 드렸던 기도를 떠올리며 저의 초심을 마주 보곤 합니다.

김해선 비비안나 | 시인

복음묵상

너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루카 9,23



캘리그래피 이수미 율리안나